

영아기 기질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2-4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8개국 비교문화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Infant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 and
2-4 Year Behavioral Inhibition:

A Korean sample for 8 cross-cultural studies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정 옥 분

메릴랜드 주립 대학교 인간발달학과

교수 Rubin, Kenneth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박 성 연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윤 중 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도 현 심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Professor: Chung, Ock-Boon

Dept. of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ryland

Professor: Rubin, Kenneth

Dept. of Consumer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Park, Seong-Yeon

Dept. of Family Welfare & Community Services,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Yoon, Chong-Hee

Dept. of Consumer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oh, Hyun-Sim

Abstract

A three-year longitudinal design was employed to ascertain whether different types of behavioral inhibition(i.e. traditional, peer-social) were stable from toddler to preschool age(2-4 year), and whether inhibited temperament and/or parenting style would independently and interactively predict children's subsequent social and behavioral outcomes. At time 1, 113 toddlers (55 males, 58 females)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in the traditional inhibition paradigm. At time 2, 36 4-year-old children were observed with unfamiliar peers in the nontraditional inhibition paradigm. Maternal ratings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children and maternal behaviors were also obtained for both time 1 and 2.

Results showed that behavioral inhibition was not stable from toddler to preschool age. Maternal authoritative behaviors at age 2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reschooler's social reticence. Toddler's behavioral inhibi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ternal authoritative behaviors at age 4. In a cross-lag correlation analysis, maternal authoritative behaviors appeared to affect child's behavioral inhibition more strongly than the other way around.

▲ 주요어(Key Words) : 영아기 기질(infant temperament), 부모의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단기종단연구(short-term longitudinal study)

I. 서론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인간 발달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이는 아동기 자체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전생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정서적 적응의 초기 발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연구가 최근 15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걸음마기 영아의 행동억제가 이후 유아기, 아동기로 이어지는 발달 단계에서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정 하에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영아나 걸음마기 아동들은 그들이 처한 발달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장한 후에도 행동통제가 안되거나, 공격성이 높거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cNichol, 1998). 더욱이, 두려움 타는 기질과 행동억제 성향이 생애 초기에 조합을 이루면 이 두 요인은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초기에 예측해주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Kagan, & Snidman, 1999).

이와 같이, 아동기 초기에 나타나는 행동억제는 그 이후 발달단계에서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고 있어 걸음마기 아동이 보이는 행동억제의 기원과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그러한 성향이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어진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요인의 중재효과로 달라지는지 밝히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행동억제의 기원과 구성요인, 그 연속성, 중재변인의 탐색에 관련된 쟁점들이 과거 15년 동안 국내외 연구자들이 탐색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명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본 연구 또한 같은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유아들에게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탐구한 바, 1차년도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였고(정옥분, Rubin,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3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낯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아동이 불안함과 초조함을 보이는 행동 패턴(Kagan, 1989)으로 정의되는 행동억제는 일반적으로 2세 이전에는 잘 측정되지 않는다(Rubin, Burgess & Hastings, 2002). 두살마기 아기가 처음 보는 새 장난감에 두려움 없이 다가가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주저함 없이 다가가는가? 아니면 주저하며 두려워하는가? 후자의 경우를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라 하며, 낯선 상황이나 물체에 다가가

기를 주저하는 경우를 비사회적 행동억제, 낯선 성인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는 경우를 사회적 행동억제로 구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낯선 성인과 낯선 상황이라는 Kagan(1989)의 고전적 행동억제 측정 패러다임에 낯선 또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시킨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과 Chen(1997) 및 Rubin과 그의 동료들(2002)의 모형을 적용하여, 위 글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세 때 측정한 비사회적 행동억제 및 사회적 행동억제가 4세 때 측정한 또래간 낯선 상황에서의 행동억제와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행동억제의 구성요인에 대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안정성과 상황에서 오는 차이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행동억제의 안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 노력을 고찰하여 본 연구가 사용한 행동억제 측정방법에 관련된 패러다임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중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그리고 기질과 양육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쟁점을 종단적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려 한다.

1. 행동억제의 안정성 규명을 위한 종단적 연구

행동억제의 안정성과 관련된 변인들의 경로와 연관성을 밝히기 시도한 연구 중 종단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Kagan과 그의 동료들(Kagan, Reznick, & Snidman, 1988, Kagan et al., 1987, 1989; Reznick et al., 1985)의 고전적인 연구나 Fox와 그의 동료들(Fox, Henderson, Rubin, Calkins, & Schmidt, 2001)의 연구 결과를 제외하고는 행동억제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과 상황에서 오는 차이점과 행동억제와 아동의 적응간 종단적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행동억제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Kagan과 그의 동료들(1988)의 연구로서, 이들은 이 실험에서 극단적인 행동억제 성향을 보인 영아들이 5년 후에도 같은 성향을 보임을 발견하고, 이러한 영아기 성향이 이후 아동기에도 이어져 성인 및 또래관계에서 지속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행동억제의 안정성은 최대한으로 표현해도 중간정도라고 믿는 연구자들은 아동기 초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억제는 성장 후 다양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행동억제의 상황간 차이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Kagan과 동료들의 연구가 낯선 성인에만 초점을 두고 실제로 또래에 대한 행동억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한다. 두 가지 행동억제가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Rubin 등(1997)은 최근 Kagan의 고전적 방법으로 측정한 행동억제와 자신들의 또래 상황 실험방법으로 측정한 행동억제는 낮은 정도의 상관임을 보고하고, 더욱이, 108명의 실험대상자의 분석 결과, 고전적 행동억제와 또래간 행동억제 중 어느 하나의 점수가 높은 39명중에서 양쪽 모두 점수가 높은 아동은 12 명뿐이라며, 행동억제의 상황간 차

* 이 논문은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042-D00178)

** 주저자: 정옥분 (E-mail : obchung@korea.ac.kr)

이점이 규명되지 않고 고전적 행동억제만으로 연구된 과거에는 행동억제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들은 또래관계에서 나타난 사회적 위축은 걸음마기 아동이 실제로 겪는 대인관계의 갈등이기 때문에, 걸음마기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보여주는 행동억제가 추후 사회적 부적응의 좀 더 강력한 예측요인이라 주장한다(Rubin, Coplan, Fox, & Calkins, 1995). 그러나 아직까지 영아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행동억제가 그 이후의 발달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밝혀진 것은 Rubin 등(2002)의 연구뿐인데, 이들은 2세 아동의 고전적 행동억제(사회적, 비사회적)와 또래 상황 행동억제가 모두 4세 아동의 말수가 적음(reticence)과 의의있는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¹⁾.

본 연구에서는 2세 아동의 행동억제는 낮은 성인과 낮은 상황이라는 Kagan(1989)의 고전적 행동억제 측정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4세 아동의 행동억제는 낮은 또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시킨 Rubin과 그의 동료들(2002)의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이 모형에서 4세 유아의 행동억제는 또래 집단 앞에서 보여주는 발표능력, 또래 집단과 과제 수행에서 보여주는 협동적 능력 등 여러 지표로 변수화한 '말수가 적음(reticence)'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2. 행동억제의 관련 요인 규명을 위한 종단적 연구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양육행동, 그리고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등 관련요인에 관한 쟁점은 1차년도 연구의

1) Rubin과 동료(Coplan, Rubin, Fox, Calkins, & Stewart, 1994; Rubin, 1982)들은 아동기 초기 또래상황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사회적 위축행동을 수동적 고립(solitary-passive), 능동적 고립(solitary-active), 말수가 적음(reticence)으로 분류한다. 수동적 고립행동은 또래 놀이친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놀이감을 탐색하거나 만들기 놀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접근/회피 동기의 결여를 나타내지만, 이 유형은 아동기 초기의 심리적 부적응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능동적 고립행동은 놀이감을 가지고(또는 놀이감 없이) 감각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홀로 상상 놀이를 하는 것이다. 이 행동은 매우 드물기는 하나 유아기 아동의 충동 성향이나 공격성향과 연관이 있다. 행동 억제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구성요인인 말수가 적음(reticence)은 매우 잦은 빈도의 방관자적 행동(onlooking, unoccupied, socially wary behaviors) 특징을 가졌다(Rubin et al., 2002). 소심하고 말수가 없는 유아들은 또래 상호작용은 원하면서도 접근하는 데는 불안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회피한다. 이들은 또한 불안함을 나타내는 지표인 '낮선 또래 집단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꺼림', '협동적 집단과 과제 수행능력이 부족함', '부정적 감정조절 능력이 결여됨'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Coplan et al., 1994; Fox et al 1995; Rubin et al., 1995). 말수가 적음(reticence)은 Kagan의 고전적 방법으로 측정된 행동억제와 같이 낮은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낮은 또래 상황에서 보이는 불안한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과보고(정옥분 등, 2002)에 상세히 고찰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만 첨예한 논쟁점만을 요약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재조망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의 접맥을 시도하였다. 기질이 영아기의 행동억제와 추후 사회적 부적응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인임을 주장하는 Fox 등(2001)과 Kagan 등(1999)은 신체적 요인 중 아동의 우측뇌 전두부의 불균형적인 EEG 패턴과 침의 코티솔 분비의 증가 등이 행동억제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루이스빌 쌍생아 연구에 의하면, 행동억제와 수줍음을 타는 기질은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며 이러한 사례가 무수한 연령층에 걸쳐 발견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전적 기질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Matheny, 1989; Matheny & Dolan, 1975; Philips & Matheny, 1997, Belsky, Rha, & Park, 2000 재인용).

그러나 한편 똑같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같은 유전적 기질을 가진 아동이라도 환경적 영향,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라 행동억제의 성장 결과가 악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도 최근 10년 들어 활발히 밝혀지고 있어 기질로서 설명되지 않는 변량은 물론 기질로서 설명되는 변량일지라도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행동억제를 유전적 기질로 타고 태어나더라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아동의 행동억제는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Arcus et al., 1992), 반대로 민감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양육하거나(Engfer, 1993), 지시, 통제를 많이 하거나(박성연, 1998), 과보호와 통제를 수반한 '지나친 우려'를 보이거나(Rubin et al., 1997; 정옥분 등, 2002), 지나친 온정과 통제, 비판과 꾸중을 수반한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는 양육행동을 할 때(Rubin et al., 2002) 더욱 더 강화된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가 적절한 통제와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주고(Kagan, 1994), 아기의 요구에 비반응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Park et al., 1997) 아동의 행동억제는 완화된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가 아동의 행동억제는 어머니가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애정을 보이거나 우려하고 심리적 통제를 가할 때 악화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한계를 설정해 줄 때 완화를 보고함으로써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상기한 연구 중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이 행동억제의 안정성을 좌우함을 예시하는 연구들이 최근 다수 보고되고 있다.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기질을 가진 영아기 아기들을 예민하게 양육한 경우, Arcus 등은(1992) 이들의 행동억제 성향이 높아졌다고 한다. 또, 기질을 통제된 상황에서 영아기 아기들에게 빈번한 지시, 통제, 거부적 양육행동을 한 경우에도 Park 등은(1997) 아기들의 행동억제 성향이 높아졌음을 보고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두살바기 아동들(Rubin et al., 1997)과 한국의 두살바기 아동들(정옥분 등, 2002)에게서 두려움이 많은 기질을 가진 아동에게 '지나친 우려'를 보이는 양육행동을 한 경우, 이들

의 행동억제는 높아짐이 보고되었다.

한편, 부정적 정서를 가진 아기에게 어머니가 거부적, 간섭적 양육행동을 한 경우 행동억제가 낮아진 연구결과도 있다(Park et al., 1997). 또 두려움의 기질이 많은 걸음마기 아들에게 '지나친 우려'를 보이는 양육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행동억제가 나타나지 않은(Rubin et al., 1997; 정옥분 등, 2002)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특정한 양육행동(예: 과보호나 간섭, 비판과 꾸중, 심리적 통제와 같은)은 특정한 기질(예: 부정적 정서나 두려움 등)을 가진 아동의 행동억제를 증가시키기도 하나, 특정한 기질을 가진 아동일지라도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행동억제가 낮아지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있음이 규명되고 있다.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간 연관성을 밝힌 이러한 최근의 연구는 모두 단기 종단 연구나 횡단 연구들이다. 아직까지 행동억제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남녀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Rubin 등(2002)을 제외하면 거의 찾을 수 없다. Rubin과 동료들은 이 연구에서 심리적 통제의 특징인 비판과 꾸중을 자주 사용하는 양육행동과 행동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2세아의 경우에는 또래 상황에서의 행동억제와, 4세아의 경우에는 또래 상황에서의 말수가 적은 행동억제와 정적 상관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Rubin 등은 이전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엄마의 간섭·통제·꾸중과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위축간 정적 상관을 발견한 바 있다(Mills & Rubin, 1998). 본 연구에서는 2세 때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2세 아동의 행동억제와 4세 아동의 행동억제와 연관지어 봄으로써 아동의 기질 및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하나의 연구 안에서 종단적 차원으로 조망하고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세 아동과 4세 아동의 행동억제와 각각의 시점에서 관찰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크기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이는 양육행동의 중재효과가 점차 입증되자,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녀의 행동억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중 어느 방향이 더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Belsky, Rha와 Park(2000)은 이 가설에 대하여 한국 아동과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자녀의 행동억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더 뚜렷하다는 결과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2~4세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억제 발달에 관련된 변인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3년에 걸쳐 실시되는 단기 종단 연구이다. 8개국 공동연구의 일환이며, 1차년도 연구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3차년도 연구 자료와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2세 때 낯선 상황과 낯선 성인의 상호작용에서 측정된 행동억제 실험에 이어 4세 때 낯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첨가된 실험이 진행됨으로써,

행동억제의 안정성, 사회적 행동억제와 비사회적 행동억제의 구성 개념상의 공통점/차이점, 어떠한 법칙이 있는 비연속성, 유기체적 특수성 가설 등 1차년도 횡단 분석에서 제기된 쟁점을 종단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2세 때 측정된 행동억제가 4세 때 사회적 행동억제와 상관관이 있는지, 둘째, 2세 때 행동억제와 4세 때 사회적 행동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직접/간접으로 4세 유아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동의 행동억제 결과와 기질 및 양육행동 간에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 2세 때 행동억제 두 유형에 근거하여 비사회적 상황(낯선 상황)과 사회적 상황(낯선 성인)의 행동억제를 분리 또는 합산하여 분석함으로써 행동억제의 기원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2세 때와 4세 때의 행동억제를 비교했을 때 행동억제 성향은 안정적인 특성인가? 즉, 2세 때의 사회적, 비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억제는 4세 때 또래관계 상황(예: 자유놀이 상황, 과제수행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억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2세 때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4세가 되었을 때 아동의 행동억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2세 때 아동의 기질 및 행동억제는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4) 2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로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가? 또는 2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4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할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단기 종단적 연구설계로 계획된 본 연구는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1차년도 연구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3차년도 연구로 대별되며, 본 논문은 3차년도인 4세 때의 아동 및 어머니의 행동을 1차년도인 2세 때의 아동 및 어머니의 행동과 관련하여 연구한 것이다. 1차년도에 표집된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및 주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2세 아동 113명(남아 55명, 여아 58명)과 그 어머니이며, 3차년도에서 수집된 자료는 1차년도 연구 후 약 2년 후인 4세 때에 연구에 참여해준 36명(남아: 19명, 여아: 17명)에 관한 것이다. 1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대상자 간에 피험자 탈락으로 인한 오류(selective sample bias)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행동억제 점수에 대한 t검증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피험자로 인한 편파적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1) 1차년도(2세)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1차년도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상황에서의 행동억제에 관한 관찰자료를 비롯하여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정옥분 등의 연구(200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1차년도의 연구절차 및 척도는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기질 척도

영아기 기질은 어머니가 보고한 Goldsmith(1988)의 TBAQ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를 통해 측정하였다. TBAQ는 활동수준, 사회적 두려움, 화를 잘냄, 쾌활함, 관심도/지구력의 다섯가지 기질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type 척도('결코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7점)로 되어 있다. 본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 .83 ~ .87 범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Block(1981)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 Report)을 우리말로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CRPR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91장의 Q-sort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이 카드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1)'에서 '이 카드들은 사실과 매우 같다(7)'까지 각각 13장의 카드를 분류하였다. 요인분석결과, 민주적, 권위적,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Cronbach α 에 의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71, .60, .53으로 나타났다.

(3) 행동억제 측정을 위한 연구절차

2세 아동의 행동억제 측정을 위한 실험실 절차는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나(전체 에피소드는 정옥분 등, 2002 참조),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서는 자유놀이1, 2와 트럭, 로봇, 터널 에피소드만을 활용하였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실험실로 안내된 후, 어머니가 질문지를 작성하는 10분 정도 동안 아동은 혼자 자유놀이를 한다(자유놀이 1). 이후 실험자가 덤프트럭을 가지고 들어와 유아에게 함께 놀자고 청하고, 잠시 후 덤프트럭을 가지고 실험실을 나간다(트럭 에피소드). 그 후 실험자는 로봇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 3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유아에게 같이 놀자고 청하며, 1분 후 로봇을 가지고 실험실을 나간다(로봇 에피소드). 실험자는 다시 터널과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와 아동에게 터널 속으로 들어가도록 격려한다(터널 에피소드). 그 후 어머니와 있는 3분동안 아동은 자유놀이를 한다(자유놀이 2).

2세 때의 비사회적 행동억제 점수는 자유놀이 1과 자유놀이 2에서 아동이 어머니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시간(초)을 합산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한편, 사회적 행동억제 점수는 트럭, 로봇, 터널 에피소드에서 어머니와 접촉을 지속한 시간, 낯선 사람이나 트럭, 로봇에 가까이 접근하기까지 걸린 시간, 터널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을 합산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모든 시간의 단위는 '초'이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점수를 Z-변환한 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2) 3차년도(4세)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Q-sort 방법인 Block(1981)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 Report)을 이용하였다. CRPR 자료는 4세 실험을 위해 실험실은 어머니에게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아동이 또래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완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서는 1차년도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민주적, 권위적,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세 요인을 사용하였다.

(2) 행동억제 측정을 위한 연구절차 및 측정내용

4세 아동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과 Chen(1997)에서 사용된 또래상황으로 실험상황을 구성하였다. 또래상황 실험은 2세에 사용한 고전적인 행동억제 측정방법, 즉 각 아동이 낯선이와 낯선장난감에 대해 보이는 행동억제 측정과는 다른 파라다임으로, 낯선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억제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또래 파라다임에서는 행동억제 정도가 다른, 같은 성의 아동 4명이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실험실 상황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4명으로 구성된 또래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 참여하였던 아동들을 성별로 나누어 실험실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억제점수를 기초로 '행동억제가 상인(상위 25%)아동', '보통정도(중간 50%)인 아동', '행동억제가 하(하위 25%)인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집단분류를 근거로 각 또래집단은 행동억제 상 1명, 하 1명, 중간 2명의 총 4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생후 4년이 지난(즉, 4번째 생일을 지낸) 아동을 중심으로 서로 비슷한 연령(\pm 3개월 차이)으로 조를 구성한 후, 각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실험시간을 조정하였다.

각 조에 속한 4명의 아동은 같은 시간에 실험실에 도착하여 약 60분에 걸친 6개의 에피소드, 즉 자유놀이 상황 두 개 에피소드(자유놀이 1과 2) 및 과제수행 상황 4개 에피소드(정리하기 1, 자랑하기/말하기, 카드분류하기, 정리하기 2)에 참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자유놀이 1(15분)동안 4명의 아동은 실험실에서 자유롭게 놀고 이어 실험자가 들어와 큰 바구니에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한다(정리하기1; 5분). 정리가 끝난 후 실험자는 아동들을 원으로 앉히고 각 아동의 이름을 부르며, 지난 생일에 무엇을 했는지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해보라고 요청한다.

아이가 말을 다 끝내지 않고 머뭇거리는 경우는 '그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한다(자랑하기/말하기; 10분).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 실험자는 아이들에게 40장의 카드를 색깔 별로 10장씩 한 묶음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방을 나간다(카드분류하기; 10분), 다시 돌아온 실험자는 아이들에게 자유놀이 2(15분)를 하도록 하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한다(정리하기 2; 3분).

4세 아동이 또래 상황에서 보인 행동억제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Rubin, Burgess와 Hastings(2002)의 부호화 기준에 따라 자유놀이 1과 2 전체시간 중 아동이 나타낸 방관적 행동 및 비 몰입행동 시간 비율, 정리하기와 카드분류 시의 비 참여 시간(초) 비율, 이야기하기 전체시간 중 말한 시간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1차년도 연구에 준해 첫 발생까지 걸린 시간도 산출하였으며(Rubin et al, 1997),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점수 또는 합산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3. 관찰자 훈련 및 자료분석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일방경을 통해 실험실에서의 아동과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8mm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녹화하였다. 1차년도의 경우, 어머니와 아동의 실험실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자료 113개 중 약 20%인 20개의 테이프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공동연구자인 Rubin(Rubin et al, 1997)의 코딩범주에 따라 관찰자 훈련(평균 80% 이상의 일치도를 보일 때까지 훈련함)을 거쳐 7명의 훈련된 관찰자가 나누어 코딩하였다. 한편, 3차년도 또래상황에 대한 내용은 무작위로 선정된 7개의 테이프에 대해 4명의 관찰자가 훈련을 거쳐 코딩하였다. 즉, 자유놀이 1과 2, 정리하기 1과 2, 카드분류, 그리고 자랑하기/말하기에서 나타내는 아동의 행동을 Rubin 등 (2002)의 코딩 범주에 따라 훈련을 한 후 모든 행동범주에서 관찰자 간 85%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을 때 4명이 각각 나누어 코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상관관계 분석과 교차시차(Cross-lag)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검사의 유의수준은 .05로 정했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0.0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행동억제의 안정성

아동이 2세 때와 4세 때의 행동억제를 비교했을 때 행동억제 성향이 안정적인 특성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세 때의 사회적·비사회적 행동억제와 4세 때의 또래상황에서의 행동억제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세 때의 사회적·비사회적 행동억제는 4세 때의 또래상황에서의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2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와 4세 때 또래상황에서 행동억제 간의 상관관계

		2세 때 행동억제		
		비사회적	사회적	사회적+비사회적
4세 때 행동억제	또래 자유놀이 시	.20	-.12	.05
	또래 과제수행 시			
	첫 발생까지 걸린 시간	.08	-.02	.11
	발표시간 중 이야기하지 않은 시간 비율	-.06	.04	.20
	색종이분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 비율	-.04	.06	-.07
	장난감치우기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 비율	-.01	-.19	-.09
자유놀이+과제수행		.24	.09	.31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억제

2세 때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4세가 되었을 때 또래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억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세 때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은 4세 때 또래상황에서 과제수행 시 발표시간에 처음 말을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부적 상관($r = -.50, p = .006$)을 나타내었다. 즉, 2세 때 어머니가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4세 때 또래 발표상황에서 말을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표 2> 2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4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 간의 상관관계

		2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과보호적	권위주의적	민주적
4세 때 아동의 행동 억제	또래 자유놀이지	.29	.03	.12
	또래 과제수행시			
	첫 발생까지 걸린 시간	.30	.00	-.50**
	발표시간 중 이야기하지 않은 시간 비율	.11	-.03	-.08
	색종이 분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 비율	-.14	-.19	.15
	장난감 정리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 비율	.15	-.05	-.02
자유놀이+과제수행		.37	-.08	-.24

** p < .01

3. 아동의 기질 및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2세 때 아동의 기질 및 행동억제는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세 때의 사회적 행동억제 및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를 합산한 경우 모두 4세 때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 = -.36, p = .042$; $r = -.39, p = .035$). 즉, 2세 때 아동이 행동억제를 많이 보일수록 4세 때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세 때 아동의 기질과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2세 때 아동의 기질 및 행동억제와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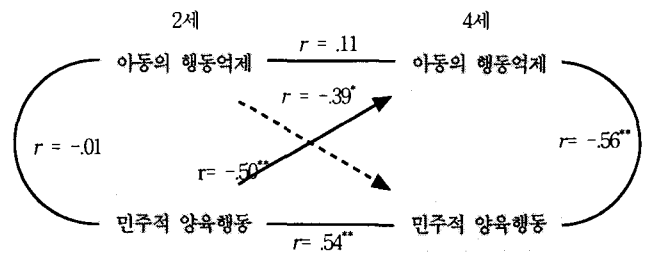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과보호적	권위주의적	민주적
2세 때 아동의 기질	활동수준	-.01	-.12	.22
	쾌활함	-.15	-.03	.29
	사회적 두려움	.32	-.27	-.23
	관심도/지구력	-.01	.01	-.01
	화를 잘냄	-.08	.23	-.06
2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	비사회적	.08	.04	-.33
	사회적	.01	.16	-.36*
	비사회적+사회적	.07	.15	-.39*

* $p < .05$

4. 아동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교차시차 상관관계

2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로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4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시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1>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동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각 2년 간격으로 측정하여 단기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경로에는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1차시기(2세)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과 2차시기(4세) 아동의 행동억제 간의 관련성($r = -.50, p = .006$)은 1차시기(2세) 아동의 행동억제와 2차시기(4세)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39, p = .035$).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이 행동억제를 보이지 않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어

니가 민주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이 행동억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p < .05$ ** $p < .01$

<그림 1> 아동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교차시차 상관관계(cross-lag correlation)²⁾

IV. 논의

단기종단연구로서 계획된 본 연구는 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1차년도 연구에 이어 수행된 3차년도 연구로서, 양 시기 모두 조사된 36명의 4세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행동억제가 2년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지를 알아보고, 2세 때의 모자녀관계의 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4세 때의 행동억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2세 때 아동의 기질 및 행동억제가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세 때와 4세 때 측정된 아동의 행동억제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2년의 기간 동안 아동의 행동억제는 안정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세 때 낮은 상황에서 행동억제를 보였던 아동들이라도 4세 때 또래간의 상호작용에서 측정되었던 자유놀이 상황과 과제수행 상황에서 여전히 행동억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들 가운데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를 합한 점수가 상위 20%에 속하는 9명의 아동들을 선정하여 이들이 두 연령층에서 나타난 행동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2세의 행동억제는 과업수행 상황에서 첫 발생까지 걸린 시간과 유의한 상관($r = .92, p < .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3세 때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 모두가 높은 아동들의 경우에만 5세에 관찰된 또래간 상

2) 2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는 비사회적 및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억제 점수를 산출한 것이고, 4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는 또래 상호작용 중 과제수행상황에서 발표 시 첫 발생까지 걸린 시간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2세 때와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CRPR을 이용해 측정된 민주적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호작용에서 행동억제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Kochanska(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극단적으로 행동억제를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안정성을 보였던 Rubin 등(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행동억제는 그 정도에 따라 안정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Belsky와 Pensky(1988), Park 등(1997) 등이 지적하였듯이 '어떠한 법칙이 있는 비연속성(lawful discontinuity)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2세 때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4세 때의 행동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과 이야기하기 상황에서 첫 발성까지 걸린 시간 간에만 유의한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발달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해온 Baumrind(1966, 1967)를 비롯한 수많은 기존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단호하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억제와 기질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Kagan(1994) 역시 단호하게 통제하고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여 양육할 경우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은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유형 가운데 특히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Rubin et al., 1997)과 달리, 본 연구에서 양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2세 때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4세 때의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는 1차년도 연구의 대상이었던 2세 아동들의 경우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흥미롭다. 즉, 동일한 시점에서는 어머니가 과보호적일 때 아동이 행동억제를 많이 보였으나, 2세 때 과보호적으로 양육을 했다고 해서 2년 후인 4세 때 아동이 반드시 행동억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한 가지는 1차년도와 3차년도 각각에서 측정된 행동억제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즉, 행동억제의 측정 지표로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낯선 어른과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사회적 행동억제를, 3차년도 연구에서는 또래간 상호작용에서의 행동억제를 이용하였다. 또 다른 가능성은 1차년도 연구에서 역시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두려움과 같은 기질특성과 상호작용하여 행동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점에 근거할 때, 양육행동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기질과 같은 아동의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정해볼 수 있다. 이는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들(박성연, 1998; Arcus et al., 1992; Park et al., 1997)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서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각각 113명과 36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연구대상자 간에 피험자 탈락으로 인한 오류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양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기인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배제할 수 없다.

셋째, 2세 때 아동의 기질 및 행동억제와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2세 때의 행동억제만이 4세 때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 즉, 2세 때 실험실 상황에서 실험자인 낯선 어른들에 대해 위축된 행동을 보였던 아동들의 경우, 그들이 4세가 되었을 때 측정된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은 민주적인 경향이 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유능한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강조한 연구결과들(Baumrind, 1966, 1967)과 유사하다. 이에 더해 단기 종단 연구인 본 연구에서 발견된, 2세 때의 행동억제와 4세 때의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일종의 인과적 관계의 가능성을 가정할 수도 있다. 즉, Belsky 등(2000)이 이미 논의하였듯이, 행동억제를 보이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위축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식으로 반응하기 쉽다. 자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민주적 양육행동의 대표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특성에 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동억제와 민주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부적으로 산출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의 위축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민주적 양육행동을 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래 가운데 자신 없이 행동함으로써 다소 뒤지는 듯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지적하거나 야단을 치는 등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다. 한편, 1차년도 연구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사회적 두려움, 쾌활함, 화를 잘냄 등의 아동의 기질특성이 3차년도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해석상 용이하지 않다. 이는 유아기에 속하는 4세 아동의 경우, 2세 때와 달리 아동의 기질적 특성보다는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적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가정할 수 있는 결과로서,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단기 종단연구설계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2세 때의 행동억제와 4세 때의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와 2세 때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4세 때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교차시차 상관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양자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후자의 상관계수($r = -.50, p < .01$)가 전자의 경우($r = -.39, p < .05$)보다 더 높게 산출됨으로써, 양자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행동억제와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가 2세 때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4세 때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가 생후 초기에는 일종의 타고난 특성으로서 아동의 주요 환경요인인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

지 않을 수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양육행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후 초기에는 아동이 행동억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관대하고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아동이 자라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적 행동을 보일 때는 자녀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제재하기 쉬우며,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아동의 행동억제를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각 연령층에서 행동억제와 어머니 양육행동간에 발견된 상관관계의 차이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양육환경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행동억제의 정도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바로 앞서 언급한 양자간의 인과적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2세와 4세라는 2년의 기간 동안 극단적인 행동억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동들의 경우 행동억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행동억제 간에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양자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억제 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차지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발견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실험실 관찰연구를 포함한 종단연구설계에 의한 연구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이를 시도한 본 연구는 그 자체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 및 그에 따른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그 중 하나로 연구대상의 탈락을 들 수 있다. 113명을 대상으로 했던 1차년도 연구와 비교해 볼 때, 3차년도에는 연구대상수가 36명으로 감소함으로써 1차년도 연구에 참가했던 부모들 가운데 거의 2/3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3차년도 연구에서 탈락되었다. 이처럼 많은 아동들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또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과 또래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실에 두 차례 모두 방문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입증되기는 하였지만, 불충분한 연구대상자수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변인들의 통계적 분석에 있어 충분한 정도의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 근거해 볼 때, 8개국 국제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된 연구의 특성상 동일한 실험절차를 이용해야 했던 본 연구와 달리, 추후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간소화된 방법을 이용하되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또래관계 측정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실험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연구대상의 표집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사전에 부모들에게 실험실 관찰연구의 번거로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실험이 진행되는 일정 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부모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접수일 : 2003년 3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3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5월 20일

【참고문헌】

박성연(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박성연 · 이사라 · 박용입(2000). 어머니의 전통적 가치관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85-95.

정옥분, K. Rubin,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Arcus, D., Gardner, S., & Anderson, C. (1992). Infant reactivity, mater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 profiles. I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ant Studies, Miami, FL.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7.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Belsky, J., & Pensky, E. (1988).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pp. 193-217). Oxford: Clarendon Press.

Belsky, J., Rha, J., & Park, S. (2000). Exploring reciprocal parent and child effects in the case of child inhibition in US and Korean sam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338-347.

Block, J. (1981).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A set of Q items for the description of parental socialization attitudes and valu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Coplan, R. J., Rubin, K. H., Fox, N. A., Calkins, S. D., & Stewart, S. L. (1994). Being alone, playing alone, and acting alone: Distinguishing among reticence and passive and active solitude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129-137.

Engfer, A. (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49-80). Hillsdale, NJ: Erlbaum.

Fox, N. A., Calkins, S. D., Schmidt, L., Rubin, K. H., & Coplan, R. J. (1996). The role of frontal activation in the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of social behavior during the preschool yea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89-102.

Fox, N. A., Henderson, H. A., Rubin, K. H., Calkins, S. D., & Schmidt, L. A. (2001).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 behavioral inhibition and exuberance: Psychophysi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influencing change and continuity across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 1-21.
- Fox, N. A., Rubin, K. H., Calkins, S. D., Marshall, T. R., Coplan, R. J., Porges, S. W., Long, J. M., & Stewart, S. (1995). Frontal activation asymmetry and social competence at four years of age. *Child Development*, 66, 1770-1784.
- Goldsmith, H. (1988).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Oregon Center for the study of Emotion technical report No. 88-04*. University of Oregon, Eugene.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459-1473.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9). Issues in the study of tempera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133-144). London: Wiley.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Basic Books.
- Kagan, J., & Snidman, N. (1999). Early predictors of adult anxiety disorders. *Biological Psychiatry*, 46, 1536-1541.
- Kochanska, G. (1991). Patterns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children of normal and affectively ill mothers. *Child Development*, 62, 250-263.
- Mills, R. S. L., & Rubin, K. H. (1998). Ar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both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0, 132-136.
- Park, S.,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Reznick, J. S., Kagan, J., Snidman, N., Gersten, M., Baak, K., & Rosenberg, A. (1985).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7, 660-680.
- Rubin, K. H. (1982). Nonsocial play in preschoolers: Necessarily evil? *Child Development*, 53, 651-657.
- Rubin, K. H. (1989). *The Play Observation Scale (POS)*. U. of Waterloo.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 (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3(2), 483-495.
- Rubin, K. H., Cheah, C. S. L., & Fox, N. A. (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the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97-115.
- Rubin, K. H., Coplan, R. J., Fox, N. A., & Calkins, S. D. (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49-62.
- Rubin, K. H., Hastings, P. D., Chen, X., Stewart, S. L.,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 1614-1629.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Rubin, K. H., Stewart, S. L., & Coplan, R. J. (1995).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Conceptu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In T. H. Ollendick & R. J. Prinz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ume 17*. (pp. 157-196). New York, N.Y.: Plenum Publishing.